

민주 전대 '어대명' 구도 속 다음주 호남경선 관심 집중

권리당원 투표율 25% 그쳐

호남 권리당원 30% 투표율 관심

송갑석 최고위원 당선권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대명' (어차피 대표 는 이재명) 구도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권리당원 경선 투표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흥행 참패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25%대로 이전에 치러진 두 차례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의 절반을 겨우 넘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체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전대 흥행과 컨벤션 효과는 물론 당권 및 최고위원 자리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권 구도는 권리당원 74%의 몰표를 받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한 부재의 현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낮은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재명 대세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주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지역 경선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25.20%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당대회 42.74%, 2020년의 41.03%보다 크게 낮다. 이는 '어대명'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름휴가 시즌이 겹친 것도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팬덤층은 투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팬덤 투표 양상은 최고위원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선권인

5위안에 진명 주자인 정경태,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 등 4명이 포진하고 있다. 친문 주자인 고민정 의원만이 유일하게 당선권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 팬덤층에서는 비명(비 이재명) 주자들을 '수박'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을 뜻하는 은어)으로 칭하며 사실상 배제투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흥행 저조의 흐름은 집중 호우 영향 등이 겹치면서 이번 주 이뤄질 총청년 및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권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어대명 구도가 계속된다면 전대 흥행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대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와 진명 주자들만 구성된다면 당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중도 진영의 지지를 끌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치러질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권리당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면 흥행 실패의 흐름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호남지역 경선 투표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가 호남 표심의 결집 없이는 지도부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한병도, 전남의 서삼석 의원에 이어 광주 송갑석 의원마저 지도부 진출에 실패한다면 호남 정치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호남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권리당원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위권에 처쳐있는 송 후보가 호남 표심의 결집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한다면 최고위원 경선도 역동성을 확보, 전체 전대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강홍식, 박용진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호남지역 경선에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이는 전대 흥행 참패는 물론 호남 민심이 '어대명' 구도의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전대의 당권 및 최고위원의 향배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교육차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회 업무보고...사실상 폐기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유기홍 위원장의 지적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국회를 “패싱”했다는 지적에는 “사전에 협의 과정이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그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문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만회하려면 교육부가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제 학교 시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지적에는 “(전일제 학교) 시범사업 방안 마련이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장 차관은 학제개편과 함께 논란이 된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외교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 질의에... (응답하다가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전 부총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다음 날 장 차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로 보는 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박 부총리가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나중에 반말이 나오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서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합의 못해

여야 간사 추가 논의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 금명간 임명 나설 듯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데 대해 “의도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강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말했다. 또 “더욱이 14만 조직을 대표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 현상은 묵묵히 땀 흘려온 경찰관들의 자존감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명분과 부처적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소모적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비상식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후보자가 경찰관 신실 적법성 논란과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인사’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제출부 기한을 넘겨서 열린데다 여야 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윤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인 전망이 나온다.

전날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경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의 법적 적절성·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난타했고, 국민의힘은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맞섰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등을 두고 민주당은 이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등 참석자 정계에 문제를 제기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집단행동이었다고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